



경륜의 무게추가 올 시즌 우승 횟수 26회를 기록한 범수도권쪽으로 급격히 기용되고 있다. 경륜 양대산맥의 한 축을 담당하던 범창원권의 우승 횟수는 9회에 불과하다.

사진제공 | 경륜경정사업본부

창원권 하락세...경륜판도 '수도권' 독주체제

수도권, 35회차까지 특선급 26회 우승
창원권 이현구·박용범 등 하향곡선 뚜렷

2017년 경륜 판도에 변화의 기류가 보인다. 팽팽한 경쟁구도로 경륜 양대산맥으로 군림하던 범수도권과 범창원권의 무게추가 범수도권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광명 35회차까지 특선급 결승전을 분석한 결과, 창원권 우승이 9회에 불과했던 반면에 수도권은 무려 26회의 우승을 기록했다. 동반입상을 살펴봐도 창원권은 5회, 수도권은 22회로 수도권의 완승으로 끝난 경주가 많았다. 특히 창원권은 인원수에 밀리지 않았던 경주나 슈퍼특선급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경주에서도 수도권에게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창원권은 광명 1회차 결승전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다. 성낙송, 이요름, 류재민이 호흡을 맞췄던 창원권은 성낙송-이요름이 쌍승 2.4배의 최저배당을 형성하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신은섭의 선행, 김주상의 추입, 이욱동의 마크로 맞선 수도권에게 1.2, 3착을 모두 내주며 쌍승 85.9배, 삼복승 47.1배의 이변을 연출했다.

2회차에서도 창원권은 류재민, 김민철, 강진남으로 맞섰지만, 수도권의 박병하-유태복에게 역부족이었고, 3회차는 슈퍼특선급 이현구, 박용범에 이명현까지 가세했지만 정종진-김현경에게 무릎을 꿇었다.

4회차에서는 반등에 성공, 각각 인기순위 5위였던 이요름의 선행 우승과 3위였던 류재민의 마크 2착이 어우러지면서 수도권의 박병하, 정하늘, 김현완을 꺾고 쌍승 23.8배를 합작했다.

그러나 이후 창원권의 동반입상은 12회차 성낙송-이명현, 13회차 박용범-이현구, 28회차 이현구-박용범, 33회차 윤민우-류재열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수많은 동반입상을 성공시키며 창원권의 기를 꺾었다.

창원권 슈퍼특선급 성낙송, 박용범과 수도권 2진급이 격돌한 지난 35회차 결승은 더욱 팬들을 놀라게 했다. 대부분 성낙송, 박용범의 낙승을 예상했다. 그래서 쌍승 2.0배의 최저배당을 형성했다. 전날 성낙송의 폭발적인 젓기기를 본 팬들은 결승에서도 성낙송의 젓기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경주 초반 강준영, 황인혁, 김주상, 김형완이 앞선을 점령한 수도권은 강준영이 그대로 시속을 올리기 시작했고, 탄력을 받은 황인혁이 젓기기로 가볍게 넘어져서 김주상이 밀착마크로 따라붙었다. 창원권의 성낙송이 젓기

기로 응수하면서 대열을 넘으려 했지만 김주상의 견제에 걸리면서 6착으로 밀렸다. 심지어 성낙송을 밀고가던 박용범은 꼴찌의 수모를 당했다. 이날 완벽한 팀플레이를 통해 황인혁-김주상-강준영 순으로 1, 2, 3착을 싹쓸이한 수도권은 쌍승 70.8배, 삼복승 154.1배를 터뜨렸다.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창원권은 현재 팀의 에이스들이 슈퍼특선급 이현구, 성낙송, 박용범이 각각 상황대처 능력 부족, 경기운영 미숙, 자력승부 능력 부족을 드러내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2진급 선수들의 성장도 둔화됐다. 반면 정종진 중심의 범 수도권은 젊은 선수들의 빠른 성장과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독주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우수급 훈련지 대항전' 개최 내달 14일부터 7주간 색다른 재미

경륜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던 팀 대항전이 이번엔 우수급에서 펼쳐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0월14일부터 7주간 한국경륜선수협회장배 '우수급 훈련지 대항전'을 개최한다.

우수급 훈련지 대항전은 훈련지별 우수급 대표 선수들이 출전해 4대4 연대경주 토너먼트를 실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이벤트 경주다. 8번째 경주로 진행되며 10월14일부터 11월26일까지 7주간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치른다. 참가팀은 고양, 서울·의정부, 유성, 창원, 대전, 대구·구미, 미원·세종, 전주, 동창원, 광주, 동서, 팔당, 인천·계양, 김해, 가평·춘천, 부산팀이다.

10월14일 고양팀과 서울·의정부팀 경주를 시작으로 매주 토·일요일 4주간 예선전을 치른다. 예선전 승자 8개 팀은 11월1일부터 2주간 준준결승을 치러 4강 진출팀을 가린다. 4강전은 11월 24일과 25일 열리며, 11월26일 대망의 최종결승전에서 우수급 경륜 최강 훈련지 타이틀을 놓고 대결한다.

토너먼트 승자결정은 경주 순위별 포인트를 부여하여 경주에서 포인트를 많이 받은 팀이 승자가 된다. 순위별 포인트는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4위 1점이다. 동점이 발생하면 상위순위 입상 팀이 승리자가 된다.

우수급 훈련지 대항전은 정규경주와 별도로 편성되며, 대항전이 있는 날은 12경주에 대항전이 열린다. 대항전 우승팀에게는 4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200만원이 수여된다.

정용운 기자

심상철, 스포츠경향배 대상경정 우승



심상철

심상철(7기, 35세, A1등급)이 21일 열린 제11회 스포츠경향배 대상경정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결승전에서 심상철은 특유의 인빠지기 전법을 구사하며 선두를 차지한 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2위는 이용석(1기, 46세, A1등급), 3위는 박정우(3기, 38세, A1등급)가 차지했다. 심상철은 우승상금으로 1000만원을, 2위와 3위를 차지한 이용석과 박정우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심상철은 "이용석 선수와 스타트가 비슷해 이용석 선수의 찌르기를 견제하며 1주 1턴 전개를 한 것이 승리 포인트였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만큼 자만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정 최고령 박석문 '8월 베스트플레이어'



박석문

경정 최고령 박석문(2기, 54세, B1등급) 선수가 8월의 베스트플레이어로 선정돼 '월간 베스트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박석문은 8월에 출전한 5번의 경기에서 1위 2번, 2위 3번으로 모두 입상에 성공하며 월간 베스트플레이어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박석문은 7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B2등급에서 B1등급으로 특별 승급에 성공했다. 8월 베스트플레이어로 선정된 박석문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50만원이 수여됐다. 박석문 개인으로서는 2015년 이후 2년 만에 수상하는 월간 베스트플레이어상이다. 월간 베스트플레이어상은 월간 시행된 경주에서 경주성과 경주내용이 우수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삭발 투혼' 최광성, 파죽의 3연승

경정 중·하위급 경기 이변의 연속
박원규·권현기 등도 인상적 활약



최광성

경정 중·하위급 선수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 시즌 총 48회차의 경주 중 이제 13회차 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최광성(2기, 43세, A1등급)이다. 최광성은 35회차에서 파죽의 3연승을 거두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때 누적 주선 보류 2회를 받아 선수생활 퇴출 위기까지 몰렸지만 삭발 투혼을 할 정도로 대단한 각오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올 시즌 3분기 A1등

급 성적을 유지하며 주선 보류 횟수도 1회 차감을 받았다. 현재 우승 17회, 준우승 12회(승률 26.6%, 연대율 45.3%)로 다승 9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전속된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로 특히 1코스는 시즌 연대율 90%대를 유지할 정도로 강하다.

올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신인 박원규(14기, 24세, A1등급)도 기량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전반기 데뷔 후 승률 31.4%, 연대율 54.3%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A1등급으로 승급할 때만 해도 역대급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후반기 들어서 급속히 저하된 경기력으로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스타트 집중력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다. 아직 후반기 우승은 없지만 빠르게 기량을 회복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되고 있다.

권현기(46세, B2등급), 강창효(44세, A2등급) 등 1기 고참들의 활약도 인상적이다. 권현기는 전반기 주선보류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후반기에는 승률 21.4%, 연대율 42.9%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스타트는 여전히 약점이 있지만 경주 운영이 전에 비해 한층 좋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강창효도 7월과 8월에는 극심한 부진을 보이다가 31회차인 8월24일 경주부터 반전에 성공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승 4회, 준우승 2회를 거두며 웬만한 강자들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전반적

으로 스타트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약점으로 꼽혔던 온라인 경주에서도 연속 입상을 성공시켰다.

한때 경정 최강의 선수였던 어선규(4기, 39세, A1등급)도 서서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선규는 꾸준하게 A1등급을 지키고 있지만 파괴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35회차 수우 11경주에서 후반기 첫 우승을 한 이후 3연속 입상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기량 자체는 워낙 좋은 선수라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과거의 명성을 빠르게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정 전문가들은 최근 복병급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심상찮게 좋은 배당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좋고 상승세를 보이는 선수들을 눈여겨 살펴볼라 고 충고한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 토트

K리그 클래식 6경기·EPL 8경기 대상 발매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도는 9월 30일~10월 2일에 벌어지는 K리그 클래식 6경기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게임을 발행한다.

K리그 클래식은 9월 30일 오후 3시에 시작하는 포항-상주(1경기), 전남-서울(2경기), 대구-인천(3경기), 그리고 10월 1일 3시부터 열리는 수원-전북(10경기), 강원-울산(11경기), 제주-광주(12경기) 경기까지 6경기다.

EPL은 허더즈필드-토트넘(4경기), 버밍엄-레스터(5경기), 스토크-사우샘프턴(6경기), 브로미치-왓포드(7경기), 웨스트햄-스완지(8경기), 첼시-맨체스터유나이티드(9경기), 애버턴-번리(13경기), 뉴캐슬-리버풀(14경기) 경기 등

모두 8경기가 선정됐다. 케이토도는 "양팀의 승무패를 맞히는 축구토토의 인기게임 승무패가 K리그 클래식과 EPL 경기를 대상으로 했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축구팬들이 중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9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발매를 시작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게임은 9월 30일 오후 2시 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추석연휴 환급, 10월10일까지 연장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케이토도)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날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회차의 환급·환불기간이 10월 10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적중결과 발표일이나 발매취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지정된 환급·환불 종료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존 10월 2일이었던 게임들의 환급·환불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장된다.

이에 해당되는 게임은 ▲2016년 9월 30일 발매가 취소된 야구토토 스페셜 91회차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적중결과가 발표된 프로토 승부식 78회차 20~22그룹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1~15그룹 ▲프로토 기록식 40회차 I~Q게임 ▲야구토토 스페셜+ 153회차~155회차 ▲축구토토 스페셜+ 43회차 ▲배구토토 스페셜 47회차~49회차 ▲골프토토 승무패 28회차 ▲토트OX 36회차 등 총 13개 게임이다.

"나만의 건전화 프로그램 만드세요"

이달 30일까지 토토편 응모 이벤트

스포츠토토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의 9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스스로 지키는 나만의 건전화 프로그램'이 마감을 앞뒀다.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26일 오전 현재 1만 명이 가까운 토토편들이 참여하는 등 응모 열기가 뜨겁다.

토토편들의 건강한 참여를 위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이벤트는 베티맨이 현재 운영 중인 건전화 프로그램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 구매 캠페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는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 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아보고,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편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의 3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전문 드론(1명)과 블루투스 키보드(10명)를 준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티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핫볼 500개를 지급한다. 이벤트의 당첨자 발표는 10월 13일 베티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